

사이버 섹스

남 성이라면 누구나 어려서 사춘기 무렵 아침에 일어날 때 팬티에 몽정을 한 흔적을 보며 황당해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간밤에 어여쁜 여성과 데이트를 하면서 황홀했던 경험이 있는 다음 날이면 반드시 나타나던 현상이다.

어여쁜 여성이 다름 아닌 이웃집 순이일 수도 있다. 마주칠 때마다 차마 말을 건네지는 못하고 가슴 조이던 상대였던가. 꿈속에서나마 말을 주고받으며 몸이라도 부딪칠 수 있다니 황홀할 수밖에 없다. 데이트 상대는 얼마전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속의 주인공일 수도 있다. 영화를 보면서 황홀했던 장면마다 멋진 상대가 바로 나였다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낮에 보았던 주인공이 밤에 꿈속에 나타나면

서 데이트를 즐기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사이버 세상이 열리면서 꿈속뿐 아니라 바로 대낮에 눈앞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실존인물은 아니다. 다만 컴퓨터 속에서 합성되어진 인간을 불러내어 데이트를 즐기는 것이다. 혹시 잘하면 데이트뿐만 아니라 섹스도 가능하다. 소위 항간에 이야기되는 사이버 만남이고 사이버 섹스가 그것이다.

사이버 만남이나 섹스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일단 사이버 스페이스란 무엇인지를 알아야한다. 매일같이 신문지상의 한 면은 컴퓨터와 인터넷등 통신에 관한 기사들로 채워진다. 컴퓨터와 통신에 의해 제공되는 공간을 '가상공간' 즉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한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보고 전화를 하는 것도 사이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개인에 있어서 사이버 스페이스는 더욱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와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대화가 필요하다. 인간에 있어서 대화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기 자신과 나누는 독백과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말을 주고받는 대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컴퓨터와의 대화는 인간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대화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상대가 실제 인간이 아닌 전자 인간이라고 보는 것이다. 컴퓨터와의 대화는 독백이면서 동시에 대화이기도 하다.

그러면 사이버 섹스란 무엇인가?

사이버 섹스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섹스를 말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상호 섹스에 대한 의미의 교환으로 실제 성관계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감각은 컴퓨터에 의하여 하나하나 기호로 바꾸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컴퓨터와 연결된 장갑(네이터 글로브)과 안경(네이터 고글)등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만지지 않고도 느낄 수 있으며 보지 않고도 상대방을 그리며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의미의 전달이란 면에서 실제 사람과 컴퓨터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진다. 컴퓨터

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좀더 발전 시켜 얘기하면 사이버 섹스에서 컴퓨터가 사람대신 섹스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혼자서 가능한 성행위로는 공상이나 에로틱한 장면을 보면서 하는 자위행위가 있다. 사람들은 자위행위를 통하여 섹스에 대한 긴장감을 덜기도 한다. 청소년기나 한참 성관계에 관심이 많은 나이나 섹스파트너가 없을 경우에 자위행위란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인간에서 실제적인 성행위란 서로 다른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의 성기는 발기가 이루어지고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고 받아들여진 후에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사정을 하고 서로 절정감을 맞본다. 물론 극히 일부 성파트너에 따라서는 성적 만족감대신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 자위행위의 또다른 형태로는 손이나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파트너가 대신 행위를 도와줄 수도 있다. 만일 파트너대신에 컴퓨터가 대신하여준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사이버 섹스란 어떤 의미에서 타인에 의한 자위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사이버섹스는 혼자 하는 자위행위 및 두사람이 필요한 성교의 중간형태에 해당한다고 본다. 사이버 섹스는 컴퓨터 너머로 실제 어떤 타인이건 아니면 컴퓨터에 기록되어있는 가상 인간이건 관계가 없다.

단지 자신이 필요를 느끼는 순간 아무 때나 스위치를 켜면 상대는 나타나는 것이다. 누구나 손쉽게 사이버 공간에 뛰어 들 수 있으며 사이버 섹스에 몰두할 것이다. 이 성과 법에 의하여 그 동안 자제되었던 감정은 분수처럼 솟구쳐 오를 것이다. 아무도 자제 할 수 없는 혼란이 올 것이다. 테크놀러지가 이데올로기를 지배함으로써 매체에 의하여 성남용을 조장할 수도 있다. 사이버 공간은 사이버 섹스로 인하여 온통 혼란스럽게 변할 수 있다. 특히 성적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하수도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성적능력에 자신이 없다고 사이버 섹스로 해결하려고는 하지 말라.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통하여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의학은 사이버보다 먼저 발기부전이나 조루문제를 해결하였다. 물론 최후의 수단일 수 있으나 음경내에 넣는 음경보형물 수술은 발기부전 환자에서 영구적인 해결사로 남아있을 것이다. 잃어버린 발기력을 잠깐동안의 수술로서 되찾을 수 있다면 컴퓨터속으로 도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 아닐까한다. 또 하나 컴퓨터에 매달려 남의 성행태만 보고있노라면 실제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상실감을 가질 수 있다. 마치 과거 포르노배우의 현란한 성적기술과 우람한 성기의 모습에 기죽어 했던 것처럼 말이다. 성적능력을 이야기할 때 정신적인 위축처럼 중요한 요소는 없다. 스트레스나 정신적 위축이 얼마나 많은 남성들로 하여금 발기에 문제를 일으켰는지 모른다. 따라서 남성의학에서는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정신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성기내부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물론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윤수비뇨기과 원장